【韓国昔話】コンジとパッチ
콩쥐 팥쥐

場面 1 コンジをひどくいじめるパッチと継母

장면 1 콩쥐를 구박하는 팥쥐와 계모

어느 한 마을에 콩쥐라는 마음씨 고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아버지 밑에서 홀로 고생하는 딸이 안타까웠던 아버지는 콩쥐와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는 과부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자신이 낳아 데리고 들어온 딸인 팥쥐만 감싸고 콩쥐에게는 힘든 집안일을 시키며 심술을 부렸습니다.

場面 2 泣いているコンジに牛が優しく話しかける

장면 2 울고 있는 콩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황소

하루는 새어머니가 콩쥐에게는 나무 호미를 주며 돌밭을, 팥쥐에게는 쇠 호미를 주며 모래밭을 갈라고 시켰습니다. 팥쥐는 순식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콩쥐는 금세 호미가 부러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 상한 콩쥐가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 황소 한 마리가 내려와 "콩쥐야 걱정마라. 내가 대신 밭을 매 주마."하고는 대신 밭을 매 주었습니다.'

場面 3 宴に行きたくて泣くコンジ

장면 3 잔치에 가고 싶어 우는 콩쥐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새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잔치에 가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도 잔치에 가고 싶어요. "
콩쥐가 말하자 새어머니는 "그래? 그러면 부엌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저기 벼 낟알의 껍질을 다 벗긴 다음 베 짜기까지 마치면 그때 따라와도 좋다."하고는 팥쥐만 데리고 잔치에 가버렸습니다.

場面 4 穴の開いた甕に入り、体で穴を塞ぐヒキガエル

장면 4 구멍이 난 항아리에 들어가 몸으로 구멍을 막는 두꺼비

콩쥐는 커다란 항아리에 열심히 물을 부었지만 아무리 해도 물은 차지 않았습니다.
실은 항아리에 구멍이 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콩쥐야. 날 항아리 안으로 넣어 다오. 내가 구멍을 막아 줄게."
콩쥐는 두꺼비 덕분에 항아리에 물을 금방 채울 수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정말 고마워."

場面 5 コンジの代わりに稲をつくスズメたち

장면 5 콩쥐 대신 벼를 찧어주는 참새들

이번에는 마당으로 나가 벼의 껍질을 벗기려 하였지만 맨손으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참새들이 날라와 "콩쥐야. 우리가 대신 벼를 찧어 줄게" 하고는 벼를 콕콕 쪼았습니다. 순식간에 벼의 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고마워 참새들아. 이제 베를 짜야겠다."

場面 6 仙女がくれた新しい服を着て喜ぶコンジ

장면 6 선녀가 준 새 옷을 입고 기뻐하는 콩쥐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습니다.
"콩쥐야. 너의 평소 착한 마음에 상을 내려주마. 내가 대신 베를 짜줄 테니 너는 이 옷과 신발로 치장하고 잔치에 다녀오거라."
"선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녀가 준 예쁜 옷과 꽃신으로 꾸민 콩쥐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場面 7 川の上を流れていくコッシンを拾うよう指示する村の郡守

장면 7 냇물 위로 떠내려가는 꽃신을 주우라 하는 마을 원님

냇가를 건너던 콩쥐는 그만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어떡하지? "
하지만 신발은 이미 냇물에 떠내려가버려 할 수 없이 콩쥐는 그대로 잔칫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지나가던 마을 원님이 냇물에 떠내려오는 빛나는 꽃신을 보게 되었어요.
"저 신발이 범상치 않구나. 내 이 신발의 주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원님은 꽃신을 주워 주인을 찾으라 명령하였습니다.

場面 8 靴を履いてみるコンジ

장면 8 신발을 신어보는 콩쥐

꽃신의 주인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의 여인들이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팥쥐도 신발을 신어 보았지만 꽃신은 그 어느 누구의 발에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콩쥐가 나타나 신발을 신어 보았습니다. 신발은 꼭 맞았고 원님은 하늘의 뜻이라며 콩쥐와 결혼하였습니다. 콩쥐는 원님의 아내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